



감지금니(전통사경과 성경사경, 코란 사경, 만다라의 대화)



천부경 만다라(자지금니, 석채, 채목)

전통사경이 성경과 코란을 만났을 때

대장경 축전서 김경호 선생, 금사경 초대전 11월 6일까지

1mm속에 우주를 담아내는 사경(寫經)의 일인자 외길 김경호 회장이 한국 전통사경의 한류를 위해 성경·코란·만다라를 한 폭에 담았다.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회장은 초 대장경 1000주년을 맞아 11월 6일까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열리는 합천 해인사 주행사장 지식문명관에서 '금사경 초대전'을 연다.

전시에서는 주작품인 '감지금니(전통사경과 성경·코란사경, 만다라의 대화)'를 비롯한 20여 작품이 선보인다.

주작품 '감지금니(이하 생략)'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양식이다. 전통 사경 양식의 바탕위에 성경사경과 코란사경, 그리고 만다라를 적극 담아냈다.

"1000년 뒤 후손들에게 21세기

여러 종교 사경의 최상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새로운 양식의 사경작품으로 발전시켜 물려주고 싶습니다."

전통사경의 세계화가 화두인 김경호 회장은 오래전부터 성경·코란 등 외국의 사경을 연구해왔다. 이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작할 때 세계 최고의 대장경 문화 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시에서는 전통사경을 발전시킨 작품인 '감지금니(일불일자 화염경 약전계)'와 새로운 재료인 순금박지에 사경한 '한글·한문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볼 수 있다.

사경은 17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불교의 수행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세계 최초로 인

쇄술을 개발해 한 연원이었다는 점과 불교 전래국 중 최상의 위치를 점했던 분야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예술이기도 하다.

사경의 역사는 1700년

전통사경 세계화가 목표

김 회장은 "사경은 일반 서예작품이나 불화에 비해서도 수백배의 공력이 더 든다"며 "인육과 선정, 정진의 수행 그 자체"라고 말한다.

사경을 할 때는 재료 준비와 작품 마무리에도 지극 정성이 필요하다. 아교를 중탕해서 녹이고 아교물을 종이에 발라 말린 다음 다시 바르고 말리기를 세 차례, 금가루 은가루를 여러 번 정제하고 수시로 붓을 세척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경을 마치

면 표면을 문질러 광을 낸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발색이 탁해져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김 회장은 이번 전시에 '전통의 계승과 재창조'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대장경 천년을 기념하는 모든 전시가 과거 대장경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한국사경연구회원전은 현재 사경수행을 하는 회원들의 전시라는 이유에서다.

또 김 회장은 대장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사경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경을 판각하려면 먼저 사경(판본)이 있어야 하므로 사경은 목판대장경을 있게 한 근본이며, 곧 세계 최초의 목판화자이든, 금속활자이든 사경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점에서 사경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어나 기자

"강통 찰 일 왜하냐고 남들이 묻네요"

20여 년 불교극작품 만든 연극인 정광진 대표

"어차피 강통 찰 일을 뭣 하러 해?"

불교를 소재로 많은 극작품을 무대에 올린 극작가 정광진 대표(J&C 코리아뮤지컬 컴퍼니)는 포스터를 들고 연극을 홍보하러 다닐 때면 늘 이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스님이든 일반신도이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불교연극'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반응들이다.

연극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예술이기도 하지만 가장 수치가 맞지 않는 예술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불교연극은 외면당하기 딱 좋다. 잘 만들어졌든, 아니든 불자들조차 무관심이다.

정광진 대표는 이에 아랑곳 않고 20여 년간 불교 극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몰두 해왔다.

"한국 불교가 쇠퇴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신도들은 고령화 돼가지, 불교문화예술은 뒷전이지, 불교문화예술분야가 활발해져야 젊은이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포교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활동이 포교라 생각하는 정 대표의 불교 인연은 각별하다.

어릴 적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가곤 했던 정 대표는 배우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로 상경, 1968년 신상옥 감독이 설립한 '신필름영화 예술학교(現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해 연기공부에 몰두했다. 어머니께서는 도시에서 유학중인 아들에게 "절에 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늘 했지만 정 대표에게는 와 닿지 않았다.

이후 정 대표는 20대 젊은 나이에 부인과 사별하고 49재를 지내기 위해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불교 공부에 푹 빠졌다.

"그때는 불교공부를 많이 했다고 착각했어요."

정 대표는 2000년대 초 실사사 회주 도법 스님, 수광사 해원 스님,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 등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이 불교에 눈을 떴다.

그 때 처음 쓴 것이 창작 불교뮤지컬 '오 부처님'이다.

"웬지 모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사비를 들여 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 출가 고행 오도의 과정을 담은 첫 창작 뮤지컬이어서 반응도 좋았지만 손해를 많이 봤죠. '그만뉘야



이 밧꼬의 주인공 정선우이자 무명 스님(강태기 분)의 리허설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정광진 J&C 코리아 뮤지컬 컴퍼니 대표

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부처님오신 날만 되면 뭉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렇게 해서 정광진 대표는 '오! 부처님'을 비롯해 '바람아! 구름아!' '고향으로 가는길' '한국의 사계절' '소리찾아 팔도유람' '연극 갖 바위' '태평성대' '가야의 혼 우룩' '산따라 물따라' '뮤지컬 갖바위' '월광대자' '무애가' '일연선사' '한바탕 꿈인것을' 등 불교전문 창작극과 뮤지컬 작품을 만들어왔다.

이번에 정광진 대표는 그동안 알 듯 말 듯 공부해온 불교를 최근작품인 연극 '이 밧꼬'에 담았다.

특히 불교와 참선이 스님들을 위한 것이 아닌 사부대중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표현하려 했다.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 법조인이 가족과의 이별로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를 구하는 줄거리가 그러하다.

보육원에서 자란 주인공 정선우(강태기 분)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간 여행에서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다. 그 상실감에 판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뒤로하고 목숨을 끊으려던 찰나 바닷가 암자의 대오 스님(박경덕 분)에 발견된 후 무명 스님으로 출가를 한다.

연극에서는 어릴 적 생모(生母)와의 이별, 부인과 딸의 사별로 삶의 의지를 상실한 정선우와 무명 스님의 애별리고(愛別離苦)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또한 남달라 화장장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시신들을 받는 화부와 노스인의 대화를 통해 생과 사의 덧없음을 느낄 수 있다.

불교라는 바다에는 소재가 무궁무진하다고 공감하는 예술가들은 많다. 하지만 그것을 건져올려 무대에 올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장사'가 안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허탈감만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을 정광진 대표는 재산을 탕진하다 시피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그래서 그의 최근작 '이 밧꼬'가 은퇴 작이지만 미련이 많이 남는단다.

"이 밧꼬"를 마무리 짓고 조용한 곳에 내려가 불교에 대한 시나리오, 드라마, 희곡 등을 씁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배운 불교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생사는 자유자재해서 우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한 시간 사십 분짜리 연극에 담아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저 이 연극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공연은 전석 3만원이며 평일 오후 7시 30분(월요일 휴무),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02)764-5073 이어나 기자

조선시대 초상화 다 모였네 국립중앙박물관, 11월 6일까지 '초상화의 비밀'



이명기의 '서직수 초상'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한복입은 사람'

한국의 美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조선시대 초상화 명작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11월 6일까지 기획전별전 '초상화의 비밀'에서 '태조어진' '윤두서자화상'과 같이 잘 알려진 초상화를 비롯해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이명기, 김홍도, 박동보, 채용신 등 당대 최고라 불린 대가들의 국보급 초상화들을 대거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유럽의 초상화까지 망라하는 국제적 시야에서 조선시대 초상화를 조망하는 최초의 전시이다. 또한 200여 점에 달하는 전시규모는 국내 초상화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특별전은 초상화 발전의 중심 공간이었던 왕실 내 통치자의 면모와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에 기반을 둔 군신관계와 사대부 가문의 초상을 살펴보는 1, 2부로 시작된다.

3부와 4부에서는 공식적인 초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성과 존재감을 반영하는 일상

생활 속 초상화, 사진 도입으로 초상화가 전통으로부터 쇠락해 가는 양상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선시대 최고 초상화가로 손꼽히는 이명기와 바로 그의 거장 페터르 파울 루벤스의 초상화 대결이다.

임진왜란때 왜군에 포로로 끌려간 안토니오 피레아로 널리 알려진 초상 속 인물이 네덜란드 스펙스 무역관장에게 발탁된 조선의 전직 관리였음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가 초상화에서 입었던 철릭과 함께, 조선 최고의 초상화가로 불리는 이명기의 '서직수 초상'을 비교 전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절제된 조선의 초상화는 '타력 한울'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형상의 진실성을 통해 내면의 혼과 인격을 드러내고자 했던 점에서 시각적 사실주의를 추구한 서구의 초상화 일반을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02)2077-9000 이어나 기자

www.gounsa.net

제4회 고운사 천년솔향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 : 2011년 10월 29일(토) 오전 9시 30분
 소 :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대상 : 경북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접수 : 2011년 10월 25일(화)까지
 이메일 gounsa44@hanmail.net , 팩스 054)834-6935
 문의 : 054)834-6934

주최 _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후원 _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여성, 교육지원청, 의성군청, (주)세영건설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 (8월 1일 ~ 10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 ~ 10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랩,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 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